

# 고전문학의 생활화에 관한 하나의 단상

— 鄉歌를 예로 하여

김창원\*

## 목 차

1. 서론
2. 고전문학에서 “이해”의 문제
  - 2.1 역사와 “이해”
  - 2.2 그 이론적 근거
3. 향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이해”
4. 마무리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향가를 자료로 하여, 고전문학이 우리의 일상 — 특히 성인들의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현재화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sup>1)</sup> 고전을 현재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일은 기실 따지고 보면 문학과 해후하는 하나의 방법, 혹은 문학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면에서 그 역시 문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고전을 보다 더 우리의 현재적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친근하게 자리잡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의 고전문학 연구 방법론이나 교육 방법론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문제 의식은 개인마다 그 실내용이 다를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역시 각자각자 차이를 드러낼 것임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필자는 이 문제를 해석학적 방법론의 차원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고전문학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학과 해후하고자 시도하고, 모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고전문학의 ‘생활화’는 고전문학의 ‘현재화’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의 ‘생활화’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전문학을 읽고 즐긴다는 뜻 외의 다른 것이 아니요, 그것의 완성된 모습은 고전문학이 나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전의 ‘생활화’는 결국 고전의 ‘현재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고전문학과의 해후, 그것은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컨대 미적 관심이라든가 역사적 관심, 또는 정치사나 문화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 이해에는 두 가지 관심사가 관계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특정한 과거 시대의 역사상을 제시하는 것, 즉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 또 하나는 역사적 자료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제망매가」를 신라시대 특수한 문화 속에 존재했던 하나의 흥미로운 작품으로 다룰 수도 있는 반면, 그것을 통하여 생(生)에 대한 진실을 배우기 위해 그것과 만날 수도 있다. 후자의 만남은 지나가 버린 과거 한 시대에 대한 흥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의 진실에 대한 우리의 탐구심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고전문학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고전문학은 분명히 하나의 역사적 문헌이며, 따라서 우리는 고전문학을 역사적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전문학의 언어와 작가들의 역사적 상황 등을 따져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하고 참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전문학을 과거사의 한 시기를 재구성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로서 취급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고전문학은 역사적 자료 이상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고전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영혼에 관하여 무엇이 참인지를 말하고 있는가를 듣는 것이 아닐까?<sup>2)</sup>

물론 위에서의 이른바, 역사적 자료를 통해 특정한 과거 시대의 역사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단지 우리의 현재적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밝히려는 지적 행위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역사란 항상 미완의 열려진 것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때에야 비로소 그때그때 사건이 되어진다— 마치 내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은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이 있는 한, 그 역사는 현재의 나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전문학을 포함한 과거 자료에 대한 해석은 항시 과거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흔히 지나간 시대의 고전문학을 연구한 논문에서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 혹은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자리 매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흐릿한 상태로 얼버무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고전문학을 학문적 관심에서, 학문적으로 다루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세계 현상들— 자연, 역사, 인간 정신의 현상들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를 학문(Wissenschaft)이라고 칭한다. 이 연구는 저 영역들에서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즉 “진리”를 인식하려는, 다시 말하면 그 현상들의 “실제적인” 모습, “참” 모습, 그 자체들의 모습을 인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학문은 현상들을 인식하려고 하면서 그것들을 사유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것들을 “객관화한다.” 학문적인 사유는 동시에 현상들과의 직접적인 해후로부터 벗어난다.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그것들에— 주체로서 객체에— 대립시킨다. 학문은 이 객관화하는 사유를 논리 정연하게 방법론적으로 완성시킨다. 현상이 객체로 만들어지면서 나에게 미치는, 또는 나를 위해 가지는 작용과 의미성은 배제된다. 왜냐하면 객체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엄밀한 의미에서나, 즉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받아들임은 대상에 대한 학문적인 관계에서 순전히 수동적인. 다시 말하면 순전히 받아들이는, 편파성 없이 보는 것이며, 대상이 가령 나의 사사로운 생활을 위해 나에게 말해야 하는 것을 내가 경청하는 일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이렇게 학문적 관점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2) 김대행은 이를 일러 “문학교육에 대한 수단의 시각”이라 이름한 바 있다. 김대행,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제7호, 대학사, 2001, p.17.

하나의 실례를 통해 보도록 하자.

때는 경덕왕 시절, 한기리라는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들어 소개한 희명(希明)이라는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다섯 살 먹은 딸의 눈이 멀어 걱정이었다 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분황사 천수관음화상 앞으로 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빌게 하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불교 쪽에서 말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 이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종교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야 기도의 효험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아이 어머니가 노래의 작자라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무언가 별다른 소개하는 말이 남았어야 어울린다. 결국 분황사쪽에서 어떤 승려가 만들어 놓은 사뇌가 형식의 기도문을 어머니를 통해 아이가 외도록 해서, 아이가 그것을 지었다 하고, 그 결과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sup>3)</sup>

「맹아득안가」와 관련된 설명의 일부분이다. “경덕왕 때에, 한기리에 사는 여자 희명의 아기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분황사의 왼쪽 법당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관세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아기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에 추론이 거듭된다. 그리고 그 추론은 현상을 객관화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작용과 의미성은 가급적 배제한 채 역사적 사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주로 관심한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이렇게 고전문학에 대한 만남의 방식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고전문학을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 즉 고전문학으로부터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학문적 관점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데 있다. 어찌 보면 고전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 물론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란 사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현재적 삶에 유용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對自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점에서 가장 일차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 2. 고전문학에서 “이해”의 문제

고전문학을 포함한 모든 역사적 자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동기를 제공하는 물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전문학을 현대문학처럼 생활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애초부터 그러한 시도가 무망한 것이라면, 그 생활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 필자는 그것이 다름아닌 고전문학에서 우리의 현재적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전문학을 통하여 세계와 인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나는 인간 삶의 가능성과 내 자신의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sup>4)</sup> 따라서 우리가 고전문학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 이유는 인간 실존의 가능성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고전문학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지금 여기에서 향가와 만나는 방법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 지식산업사, 1983, p.156.

4) 필자는 고전문학에서 이 “이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살아 있는 고전문학 교육, 즉 고전문학 생활화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을 새로이 모색해 보고, 그 방법적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2.1 역사와 “이해”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과연 이 “이해”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향가를 통하여 살펴 봄으로써, 문제의 실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 고전문학에서 향가만큼 양적으로 그 연구 성과가 쌓여 있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향가 연구사를 대략 훑어보면, 이 엄청난 양의 연구물들이 일정한 합치점을 찾으면서 방향성을 갖고 성과를 축적해 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한 수 한 수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저마다의 진실을 주장하며 어지럽게 散列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이다. 왜 이러한 사태에 이르른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차적 책임은 다른 아닌 연구자의 자세에서 찾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향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자들이 “오늘 여기”의 문제를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데에 있다. 모든 학문 활동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전개되어질 때에만이 그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이 그러한 활동과 그 결과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향가를 만난다는 것은 기실 향가를 교육적 관점에서 만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향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운다는 것은 또한 그 향가를 통해 삶에 대한 “이해”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문학을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현재화하기 위해, 그리고 고전문학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향가를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향가와와의 만남은 주로 향가의 객관적인 역사상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향가와와의 만남은 대체로 학문적 관심에서 향가의 역사상을 재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향가의 역사상을 찾는 것과 향가를 통해 삶에 대한 “이해”를 발견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역사의 문제와 “이해”의 문제는 꼭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향가에서 이 “이해”의 문제, 다시 말해 삶의 문제가 배제되게 된 데에는 그것만의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의 향가와와의 만남에서 이 “이해”의 문제가 철저히 배제되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의 향가를 접근하는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sup>5)</sup> 향가는 대부분을 신화적 진술에 의존한 채 오늘 우리에게 전승

5) 그간 고전문학 연구자들과 문학사기들을 지배해 왔던 향가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 보면,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헌화가』를 보자. 잘 알듯이, 『헌화가』는 순정공 일행이 강릉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수로부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개의 기이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아주 짤막한 내용의 산문기록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그간 선학들이 『헌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제로 삼았던 사고 틀을 알기 쉽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설화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다; (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설화일 따름이다(조동일,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p.121 참조). 이 사고 틀은 그간 선학들의 『헌화가』에 대한 해석이 관련 기록물의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며, 어디까지가 우의 혹은 허구인가 그리고 그 우의 내지 허구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요컨대 그것은 『헌화가』를 둘러싼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거나 번역해서 이 노래의 역사상을 재구성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헌화가』 뿐만 아니라 향가 일반에 걸쳐 가장 널리 행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승을 통해서 향가의 역사상을 재구한다는 것은 곧 향가의 전승 기록에서 신화적 진술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상을 재구하기 위해서 향가의 전승 기록에 포함된 신화적 진술은 역사적·정치적 寓意나 상징으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도솔가」 전승 기록에서 “二日並現(해가 두 개 나타남)”의 의미를 정치사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왕당파에 도전하는 반왕당파 세력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상징으로 독해해 낸다거나, 「헌화가」 전승 기록에서 수로부인이 용에게 납치된 사건을 왕과 귀족 집단 사이에 벌어진 권력다툼의 우의적 표현으로 이해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신화적 표상을 역사적 사건의 우의나 상징으로 독해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은 곧 향가의 전승 언어가 어떠한 전략상의 이유로 내적 거리를 갖고 신화적 표상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학은 향가 전승 언어의 신화적 진술들이 오늘날 우리들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비록 문제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그것들이 무반성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한 해석학은 그 시대의 인간들이 다름 아닌 신화적 세계상에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적 진술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역사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향가 전승 언어에서 향가의 역사상을 재구하기 위해 신화적 진술을 제거해 버린다면, 다시 말해 신화적 진술을 진술된 그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해”도 함께 제거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해”는 신화적 진술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화의 언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이해”가 제거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향가를 현재화하고, 향가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 2.2 그 이론적 근거

여기서 신화적 진술 속에 “이해”가 내재해 있으며, 신화적 진술이 제거되면 그 “이해”도 제거되고 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헌화가」 전승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향가에서 “이해”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론적 타당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헌화가」 전승 기록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바로 수로부인이 용으로부터 구출된 뒤의 정황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부인의 옷에는 이상한 향내가 스며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此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이 진술은 이 전승 기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진술은 「헌화가」 전승 기록이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문장의 이면에는 이 전승 기록의 저자의 독특한 태도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저자가 마치 오늘날의 신문 기자처럼 현장에서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듯이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저자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저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비세상적인 것(unworldly event)이기 때문이다. 이 저자는 스스로 자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비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지고 있는 해석 방법론인데, 이는 ‘향가를 둘러싸고 있는 산문기록을 설화성이 개재해 있는 史實 혹은 사건의 기록문으로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朴魯堉, 『新羅歌謠研究 方法論』, 『新羅歌謠의 研究』, 說話堂, 1982, p.16)라고 할 수 있겠다.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여러 모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형식을 일러 “자기 증명의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쉽사리 의심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야기 자체가 그 이야기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형식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전승 기록이 보여 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수로부인이 구출된 뒤 남편 순정공이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던가고 호기심을 보이자(公問夫人海中事), 부인이 이렇게 대답한다. “일곱 가지 보배로 지은 궁전이 있고, 그 음식은 달고 부드러운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계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七寶宮殿, 所饌甘滑香潔, 非人間煙火).”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아니한가? 순정공은 왜 죽다 살아난 부인과의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에 이렇게 느닷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순정공은 이 순간에 당연히 아름다운 부인의 안위를 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 전승 기록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문장 이전에 이미 이 이야기는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 불필요한 일종의 부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다소 엉뚱하게 비칠 수도 있는 혐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불필요한 문장을 덧붙여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바닷속을 직접 다녀 온 사람의 입을 통해 그곳이 정말로 이승의 저편에 실재하고 있는 세계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 또한 전형적인 “자기 증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전승 기록이 취하고 있는 “자기 증명의 형식”을 단서로 하여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전승 기록은 우리가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의 일상과 나란히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사실로서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믿기 어려운 세계의 실재(實在)를 입증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저자 자신이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마무리짓고 있는 데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수로부인은 절세의 미녀인지라 매양 깊은 산골이나 큰 못을 지나다 이처럼 여러 번 신물들에게 납치되곤 하였다(水路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요컨대 저자 자신은 분명 이 두 사건을 수로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정령 혹은 귀신들이 벌이는 유혹 및 납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현화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현화가」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승기록의 신화적 진술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승에서 신화적 진술을 알레고리화하여 이를 역사적으로 번역한다거나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 — 예컨대, 원형비평이나 분석비평 — 하여 어떤 의미를 구하려 한다면, 그 해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은 이 전승 기록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전승 기록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신비로운 사건을 독자들에게 문면 그대로의 진실로 수용하기를 요구하면서 특수한 실존 이해를 표현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의도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설화를 분석하듯이 이 전승 기록에 접근하려 한다면 결국엔 이 이야기가 진정 뜻하고 있는 바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화가」의 접근 방법은 이 전승 기록의 신화적 진술들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학이 곧 이 전승 기록에 포함된 신화적 진술들을 사실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저자 자신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서 밝히고 싶어하고 증명하려고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신화적 진술들이 모두 무의미한 이야기일까? 우리는 신화적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에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진술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신화적 진술들이 그 신화의 껍질 속에 감추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전승 기록의

신화적 진술들은 그 객관적인 표상 내용 자체로 검토될 것이 아니라, 이 진술에서 표현되는 “이해”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이 전승 기록에 대한 실존적 해석으로서, 다시 말해 이 전승 이야기의 의미를 인간학적으로, 인간 실존에 관한 것으로 폭로하는 일종의 해석으로서 수행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방법론에 따라 「헌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헌화가」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의 역사상을 재구성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방법론은 「헌화가」의 작가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포함하여, 「헌화가」의 시대적 배경이나 「헌화가」의 역사적 문맥 등 흔히 역사적 연구가 관심을 갖고 밝히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가 「헌화가」의 전승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헌화가」의 객관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밝혀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전 자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그것은 이 노래를 전하는 전승 기록 자체가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듯이, 지금까지 「헌화가」를 포함한 향가 작품들의 객관적인 역사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수많은 추론들이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면서 분분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다른 어떤 문학 텍스트보다 유독 향가는 그 역사상의 재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간에 합의점을 구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전하는 자료가 영성하고 시대가 오래되어서일까? 향가 자료를 두고 수많은 추론이 분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다음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즉, 현재 『삼국유사』가 전하고 있는 전승 자료를 통해서 이 노래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역사적 상(象)을 재구성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로서 우리는 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삼국유사』의 전승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설화적으로 윤색·굴절된 역사가 아닌, 특수한 시대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 및 요구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라는 것을. 물론 향가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상 그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에 의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지어진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헌들이 현재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작품 자체의 객관적인 역사상이 아닌, 특수한 시대 인간들의 세계와 삶에 대한 “이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전승 자료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은 단지 특수한 시대의 인간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포된 “이해”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향가와 만남의 방법은 자료 자체의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소극적 방법론에 불과한가? 사실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적극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분명히 향가는 역사적 문헌이며 따라서 우리는 향가를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자료가 허락하는 한 향가의 언어와 향가 저자들의 역사적 상황 등을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향가와 만나고자 하는 참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향가를 자료로 하여 과거사의 한 시기를 재구성하기 위한 역사적 문헌으로서 그것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향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 3. 향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이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향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향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삶에 대한 어떤 진실을 전해주고 있는가?

향가를 포함한 전승 자료<sup>6)</sup>는 일반적인 역사 자료와는 달리, 특수하게 귀신(鬼神)·요괴(妖怪)·신선(神仙)이 정말로 세계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체인지 아닌지,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전승 자료들이 자신의 문제로 다루는 이와 같은 세계를 유명(幽冥)이라 부를 수 있다. 유명은 이승과는 다른,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세계인 동시에 이승의 물리적 법칙의 작용을 받지 않는 세계, 그러면서도 이승과 단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상호 연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sup>7)</sup> 향가 전승 자료는 이러한 유명세계를 단순하게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하나의 진지한 지식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향가 전승 자료가 이처럼 유명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이를 진지한 지식으로 다루었던 이유는 당대인들의 인간 실존에 대한 특수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인간 실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 안에서 일정하게 한계 지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알려져 있고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이 세계는 이를 근거 지우고 한정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세력들에 의해 항상 지배되고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일치해서 이들 전승 자료는 인간이 자기 삶의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인식, 인간은 알려져 있는 이 세계 내부에 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알려져 있는 것 저편에 속한 세력들에 메어져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따라서 향가 관련 전승 자료들은 단순한 설화가 아닌, 세계와 인간에 대한 특수한 이해를 표현하는 특수한 양식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 수 있다. 예컨대 「헌화가」 관련 서사는 순정공이나 수로 부인에 관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한 기록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떤 허구적 흥미를 주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진지한 지식과 이해를 전하고자 하는 특수한 양식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의 너머에, 이승의 물리적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도 이승과 단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상호 연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계가 실재한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상에 관한 일종의 '이해'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이한 존재가 나타나 미모의 여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며 구애의 노래를 불렀다던가, 바다의 용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남의 아내를 납치한다던가, 또는 납치된 여인을 구해내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잔뜩 겁을 준 결과 용이 여인을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 밑바탕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인식, 인간은 알려져 있는 이 세계 내부에 메어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알려져 있는 것 저편에 속한 세력들에 메어져 있다는 실존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들 이야기는 이렇게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근거 지우고 한정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세력에 대한 삶과 이해를 통해 삶의 안전을 구하려는 인간의 의식 활동의 소산이다. 따라서 이들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깊은 원리는 지혜라 할 수 있다. 어둡고 공포스러운 유명한 세계에 지혜의 빛을 투사하여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이 현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혜의 빛은 예술의 정신이기도 하며, 동시에 삶의 본능이기도 하다. 이 삶의 본능에서 발원하는 예술 정신에 의해 어둠의 세계는 빛의 세계로 변화한다. 이승의 인간들처럼 미모의 여인을 유혹하기 위해 꽃을 꺾어 바치며 노래를

6) 향가는 전승 기록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승 기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 또는 서사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가 관련 전승 기록을 기존의 방식대로 향가의 배경설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차명궤, 「魏晉南北朝 志怪의 敘事의 特殊性 分析」, 『동아문화』 32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94 참조.

부르는 신은 이제 더 이상 불가해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이야기에서 유명한 세력들은 인간과 달리 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저편의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처럼 인간적 감정과 인간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더욱이 신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이를 “중구삭금(衆口鑠金 못사람의 입이면 쇠도 녹인다)”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방식으로 겁을 주어 되찾는다는 이야기에 접하면 신이 마치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름 없는 존재인 듯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유명한 멀고 먼 어디엔가에 있는, 어둠에 휩싸인 공포로써가 아니라, 이승과 나란히 가까이 있는 친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유명한 세력들도 인간과 다름없이 울고 웃는 존재라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공포스럽기만 한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유명한 세력들이 인간적 감정과 인간적 본능에 따라, 인간적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면 현세의 인간들은 이제 안심하고 인간을 대하듯이 신을 대할 수가 있다. 물론 이처럼 친숙한 유명한 인간이 인간의 잣대로 측량한,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의 환상적 투영에 불과하다. 인간은 유명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설혹 유명과 대면할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의 비밀이나 법칙을 손에 넣을 수는 없다. 인간은 단지 차안적인 삶, 세상적인 운명에 지배받는 삶, 인간의 계획과 설계에 따른 삶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유명한 세계를 그려보려고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소원과 꿈이 암시해 주는 상(象)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현세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공포스러운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유명한 존재들이 삶의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대한 나름의 장악이 없이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의 「도술가」 관련 자료도 읽혀질 수 있다.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룻날 해 둘이 나란히 떠서 10여일 간 없어지지 않았다. 일관이 진언하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모시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그때 마침 월명사라는 이가 남쪽 길로 지나가므로 왕은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들여 단을 열고 계를 지으라 명했다. 월명사는 왕께 아뢰기를,

“저는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오직 향기만 알고 범패 소리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이미 인연 있는 스님으로 정하였으니, 향기를 지어도 좋다.”

고 하였다. 이에 월명사는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 (중략)

「도술가」를 지어 부른 뒤 곧 두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왕은 월명사를 가상히 여겨 그에게 차 달이는 기구 한 벌과 수정 염주 백여덟 개를 주었다. 그런데 홀연히 모습이 정결한 한 동자가 공손하게 차와 염주를 받들고 궁전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다. 그 동자를 두고 월명사는 궁중 안의 심부름하는 아이라 하고, 왕은 대사의 시중을 드는 아이라 짐작했으나 서로 맞추어 보니 아니었다. 왕은 매우 이상스럽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를 추적하게 하였는데, 동자는 내원의 탑 속에 숨어 버리고 차와 염주는 내원의 남쪽 벽에 그려 놓은 미륵보살의 성상 앞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월명대사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저승의 세력과 이승의 세계는 서로 다른 규약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소통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만약 이승과 저승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라면 인간에게 저편의 세계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상호 소통의 실마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떤 초월적인 세력에 의해 지배당한다거나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실존적 이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승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 혹은 윤리의 문제가 부각된다. 이승에서 인간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위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간명하게 답변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저승의 세력에 대해 알 길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체적 지배력을 초월해 있지만, 이승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성의와 정성으로 이승의 인간을 감복시키듯, 저승의 존재가 비록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초월적 힘과 규약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고, 그 존재가 우리의 삶에 매우 공포스럽게 우리 삶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세에서 인간은 그 유명에 대해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다는 옛 말이 있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유보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로서 다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에 의해 주어진 세계관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계와 인간 삶의 전체적인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몇몇 향가를 자료로 하여 고전문학이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현재화될 수 있는 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관점은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론적 시각, 교육론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방법론은 고전문학에 대한 또 다른 만남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모든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의 활동에서 전제로 삼아야 할 방법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방법론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지향하고 있고, 나의 삶을 문제로 하여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론적 만남은 또한 그 내부에 항시 모험과 결단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문학 연구 방법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만날 수도 있으며, 기존의 문학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하였던 문제가 새로이 중시될 수도 있다.

고전문학의 생활화는 고전문학의 현재화와 동일한 문제이다. 고전문학의 생활화란 고전문학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때에만이 진정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의 생활화는 먼저 고전문학을 삶과 밀착시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구체적인 성과들의 교육적 활용 방법은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고전문학의 생활화는 좀 더 가능성 있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는다.

【핵심어】 : 생활화, 현재화, 지금 여기, 이해, 역사, 학문

**ABSTRACT**

**A short study of the living of the ancient literature**

Kim, C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ne of ways to reading Hyangga especially in respect of giving of meaning to our life in now and here.

Hyangga is a historical text. The method of understanding of this historical text is two. one is to research an objective phase of past period. other is to learn what is needed to our life by way of that.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case of the latter. That is one of ways that realize the living of Hyangga.

This study is methodological reflection that is how to learn that is necessary to our life. Our hermeneutics of reading hyangga is demythologizing. This method is learning to understanding that is expressed in mythological statement.

**【Key Word】** : demythologizing, understanding, now and here